

오순절 후 다섯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5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3년 7월 2일 오전 10시

인도: 정재홍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통일41)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4번 (시편 5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장 “세번 아멘”(통일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강석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요한복음 5:24-29	박은정집사
찬 양 Anthem	주 은혜 놀랍도다	찬양대
설 교 Sermon	“무엇을 들습니까?” (What are you listening?)	정재홍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통일353) 1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g Hymn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통일219)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정재홍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날마다 우리와의 만남을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기도의 삶을 돌아보며 주께 회개합니다.

우리는 외식하는 자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보다도

진심과 진실이 없는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는 기도보다 그저 나의 원하는 것들,

나의 필요만을 채우려는 요구로만 가득 차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막막해서 걸만 맴돌다

아예 기도도 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낸적도 있었습니다.

주께서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하셨으니

상한 마음으로 구하는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우리를 도우사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와 깊은 교제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소서.

주여, 우리가 진정 주님만 구하도록 진심을 다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 5:13,14)(시 51:17)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개역개정 요 5:25)

“I tell you the truth, a time is coming and has now come when the dead will hear the voice of the Son of God and those who hear will live.” (NIV,John 5:25)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7/2 (주일)	7/3 (월)	7/4 (화)	7/5 (수)	7/6 (목)	7/8 (금)	7/9 (토)
	수4	수5,6:1-5	수6:6-27	수7	수8	수9	수10
본문	시129-131	시132-134	시135,136	시137,138	시139	시140,141	시142,143
	사64 마12	사65 마13	사66 마14	렘1 마15	렘2 마16	렘3 마17	렘4 마18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7/5 수 오후7:30)	룻기 6) – “고부간의 갈등 해소”(룻 2:17-23)
토요 새벽기도회 (7/8 토 오전6:30)	데살로니가전서 6) – “거룩함”(살전 4:1-8)

지난 주일(6/25) 말씀

“참 좋으신 하나님”(신명기 1:29-33)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1.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0 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란 뜻은, 앞서서 인도하시며 우리가 안전하게 걷게 하시며 장애물이 있으면 제거해 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32 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좋으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앞일을 아실뿐만 아니라, 앞서 가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2.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여기 있는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기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두움의 세력, 즉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으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바로 이 싸움은 믿는 사람이면 반드시 싸워야 하는 싸움이요,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무서워 말고, 나를 대신하여 이제도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3.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1 절에서도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은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안으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아껴주시는 사랑의 극치를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아주셨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고 안기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안고 계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안으시고, 나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함을 입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설/교/ 메/모